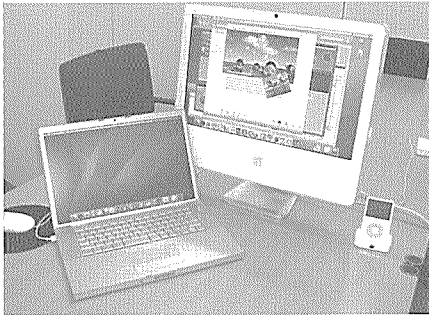


애플 컴퓨터, Mac에서 윈도XP 구동



애플은 4월 5일, 자사의 인텔 칩 기반 컴퓨터인 Mac에서 MS의 윈도 XP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SW인 부트 캠프(Boot Camp)의 베타 버전을 자사 웹 사이트에 공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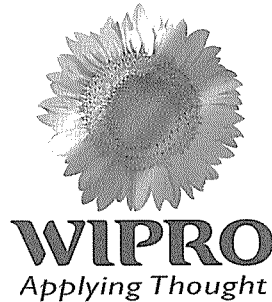
부트 캠프는 인텔 칩 기반 맥 사용자가 맥 OS X와 윈도 XP 중에서 OS를 선택해 부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PC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윈도 OS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90년대 중반 도스(DOS)와 윈도를 가동할 수 있도록 x86 계열 프로세서가 포함된 플러그인 카드를 지원하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였다가 곧 중단한 적이 있다. 애플이 지난 1월 처음으로 파워PC 칩이 아닌 인텔 칩을 장착한 맥을 발표한 후, "애플이 맥에서도 MS의 윈도 OS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다.

그 동안 애플은 맥 이외의 컴퓨터에서 맥 OS X가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막아왔다. 반면 맥에서 윈도 OS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도 않았지만 적극 지원하지도 않아 왔다.

애플 고객들이 윈도를 운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애플이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점이 기쁘다"고 밝혔다. 윈도 OS 관련 사항에 대해 대부분 냉소적이었던 맥 매니아들도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글로 맥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채웠다.

인도 위프로, 미국 컨설팅 업체 c망고 인수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 위프로 테크놀로지스가 미국의 컨설팅 업체 'c망고'를 2,000만달러(한화 193억8,000만원)에 인수한다고 2월 20일밝혔다.

위프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컨설팅 업체인 c망고를 인수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관리 분야에서 그들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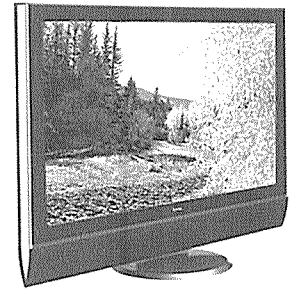
c망고는 연간 매출 약 1,300만달러 규모의 업체로 이번 계약에 따라 위프로의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그룹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인도 기업들은 인프라 관리 분야 사업에서 IBM과 액센추어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수딧 난디 위프로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번 인수는 기술 인프라 서비스 같은 성장 산업에서 강한 입지를 일구려는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c망고의 컨설팅 기술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범위 및 깊이에서 중요한 가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c망고는 직원수 120명 정도로 미국 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인도 뭄바이 근처의 소도시인 푸네에 납품 센터를 두고 있다.

중국 전자업체들 평판TV 시장으로 진출



중국의 대표적 전자업체들이 날로 증가하는 평판TV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4월 3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아모이전자(夏新電子), 팬더그룹(雄貓電子集團) 등 전자 대기업들이 부진을 거듭하는 휴대폰 사업 대신 LCD·PDP 등 평판TV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하고 사업 확대 및 신규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아모이와 팬더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주력 생산해 왔지만 2위였던 아모이가 지난 해 적자로 전략했고 팬더는 아예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수익성 재고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두 회사의 잇따른 평판TV 진출로 휴대폰 등에서 고전하는 여타 전자 대기업들의 사업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평판TV 시장은 2004년부터 형성되기 시작, 지난 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총 190만대 중 LCD TV가 135만대, PDP TV가 55만대였다.

아모이는 최대 성장제품으로 꼽히는 LCDTV를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하고 수익 위안(수백억원)을 들여 복건성 아모이 시내에 연산 100만대 규모의 LCD TV 공장을 조만간 착공, 연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 공장이 건설되면 현재 연 50만대 생산능력은 150만대 체제로 확대된다.

HP와 인텔, HPC 슈퍼컴퓨터를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

HP와 인텔 및 CESGA(갈리치아 슈퍼컴퓨팅 센터)가 지난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유럽 최고 용량의 메모리 공유형 HPC 슈퍼컴퓨터를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ESGA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총 비용이 6,000만유로(7,274만달러)로 책정됐으며 내년 중반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C넷이 보도했다.

CESGA는 지난 주 한 성명에서 '피니스 테라에(Finis Terrae)'라고 불리는 이 고성능 컴퓨터는 대규모 컴퓨팅 및 스토리지 용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HP가 공급하고 유지할 이 슈퍼 컴퓨터는 인텔 아이테니엄 2 프로세서 코어 2,500개 이상과 고성능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 또 1만9,000GB 공유 메모리 아키텍처, 39만GB 용량의 디스크 스토리지, 1PB(페타바이트, 1,000조바이트) 자동화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내장하며, 리눅스·러스터(Lustre)·글로버스(Globus) 등 무료 SW를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울트라 모바일 PC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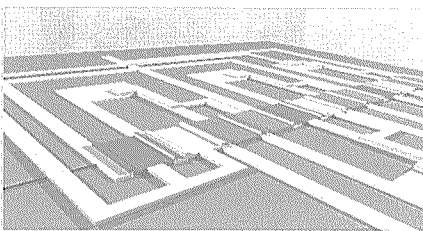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울트라 모바일 PC(오리가미)를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원도 모바일 플랫폼 사업부문 부사

장인 빌 미첼(오른쪽)과 일본의 PC 제조사 PBJ의 다카하시 마사토시 사장이 4월 4일 도쿄 호텔에서 공동 개발한 유니버

설모바일PC(UMPC)를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캐디'로 명명된 이 컴퓨터는 기존 노트북PC보다 훨씬 가벼우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키보드 기능도 제공한다.

IBM, 세계 최초 탄소나노튜브 전기회로 개발



IBM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사상 최초로 단일 '탄소 나노튜브' (Carbon Nanotube) 분자 주위에 완전한 전자 집적 회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탄소 나노튜브'는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실리콘 반도체를 능가할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신물질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호 사이언스(Science)지에 IBM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소개되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 이 회로는 표준 반도체 프로세스를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개별적으로 구축된 구성요소들을 연결하는 방식 대신 회로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단일 분자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IBM 연구소의 과학 및 기술 담당 부사장인 T. C. 첸(Chen) 박사는,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는 기존 실리콘 기반의 최신 반도체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개별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의 제조 및 최적화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한 회로 내에서 탄소 나노튜브 소자가 갖는 잠재력

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기존의 반도체 제조 기법에 통합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3세대(G) 휴대폰 사용 인구 시장의 50% 넘어

일본의 3세대(G)휴대폰 사용 인구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불을 뿜고 있다.

일본 휴대폰 시장은 음악 다운로드나 동영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3G 휴대폰 계약자 수가 전체 휴대폰 시장의 50%를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 전기통신사업자협회의 조사를 인용,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약 가운데 3G가 차지하는 비율은 2월 말 현재 50.8%로 나타났다. 이는 △원세그의 개시 △단말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이용 지역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3G 휴대폰 계약자가 과반수를 넘어서면서 선두인 NTT도코모와 2위인 KDDI의 경쟁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신규 가입자 수에서 해약자 수를 뺀 순 가입자 증가는 지난 해 4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두 회사 모두 183만건에 달했다.

모든 기종이 3G 지원인 KDDI의 'au'는 PC에 다운로드된 CD를 휴대폰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신제품 3G폰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